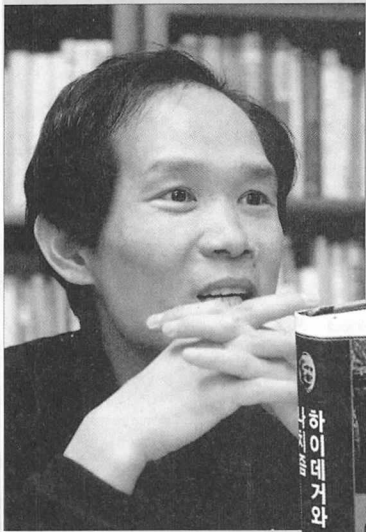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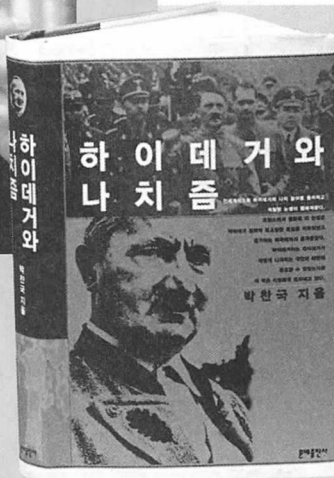
“하이데거는 나치스가 아니었다”

《하이데거와 나치즘》 펴낸 박찬국 교수



박찬국 교수

문예출판사/A5신/466면/18,000원



《하이데거와 나치즘》(문예출판사)을 펴낸 박찬국 교수(42,

서울대 철학과)는 하이데거의 전기와 저작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하이데거 사상과 나치즘의 동일성과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하이데거의 나치즘은 극단적 정치이데올로기인 나치즘과는 다른 그의 철학적·정치적 신념이며 이를 통해 하이데거 사상의 기원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하이데거에 대한 서구 지성계의 입장 정리해

박교수는 먼저 하이데거를 둘러싼 논쟁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면서 하이데거가 나치에 참여하는 과정과 행적을 추적한다. 또 당시 독일 우파 지성계를 지배한 1914년의 이념을 수용한 하이데거의 사상과 나치즘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 검토하고, 그의 나치 참여를 실마리로 존재사상을 재해석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 사상과 나치 참여 사이에 우연 이상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하이데거 사상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했다.

“하이데거의 나치참여를 둘러싼 입장은 크게 맹목적 비판과 맹목적 옹호로 나뉩니다. 전자는 고발적인 성격의 폭로에만 치중하고 후자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하죠. 그러나 이 둘 모두 하이데거의 나치즘을 그의 사상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가 나치즘에 동조하는 것은 프라이

부르크대 총장에 선출되면서다. 그는 총장취임 연설에서 나치즘이 자본주의로 황폐화된 독일사회를 각성시키고, 히틀러만이 독일의 진정한 현실이자 법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독일대학에 부과된 정신적 사명에 입각해 학생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노동봉사’ ‘국방봉사’ ‘지식봉사’의 세가지 지도원리를 대학 내에 도입한다. 급진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박교수는 이를 당시의 역사적 문맥에서 읽어낼 것을 요구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파시즘과 불세비즘 같은 전체주의 체제는 권력욕과 광기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소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체제의 병폐를 극복하려는 대실험이었습니다.”

국수주의적·종교적 전통에서 자란 존재사상

하이데거의 이런 신념은 당시의 우파 지성계를 지배하던 특정한 담론에 뿌리박고 있다. 1914년의 이념이 그것인데, 이는 현대 기술문명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본질로 한다. 물론 이 이념이 표방하는 국수주의적이고 낭만적인 태도는 이미 피히테와 바그너, 니체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하이데거 역시 자신의 시대에 전면화된 이 정신적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하이데거의 고향 메스키르히는 기독교 사회주의적이며, 보수적이고, 반유태주의적인 정신적

그동안 하이데거의 나치 참여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정치적 과오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박교수는 하이데거의 나치즘이 그의 현상학적 존재론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국수주의적 전통과 고향의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하이데거가 이를 바탕으로 독일민족 재탄생의 이념적 좌표를 나치즘 정신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이데거의 존재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전통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존재론이다.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칸트의 초월적 통각, 헤겔의 절대정신, 마르크스의 생산력,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가 하이데거가 ‘폐기처분’한 목록이다. 하이데거가 볼 때, 이들이 이론적 추론에 의지해 구성해낸 존재를 보편으로 제시하는 것은 편견과 왜곡과 우연을 ‘필연’으로 변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는 불안을 통과하면서 존재에 대한 경이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시공간(피지스) 속의 인간입니다. 그 경이란 인간이 내던져진 자신의 상황을 고향으로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점에서 그의 존재사상은 향토와 조국에 대한 철학입니다.”

하지만 박교수는 하이데거의 정치철학을 존재론과 구별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대인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근원적인 감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존재가 진정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셈이죠. 우리의 사고, 실존방식이 전체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하이데거의 민족공동체 이상은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거대사회에서 그런 이상을 무리하게 실현하려는 의지는 전체주의화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 강성민 기자